

# 아침 8시면 북적대는 대청동 도매골목

## 피난시절의 옛 명성 부활 꿈꾸는 부산지역 서적도매상

반세기에 걸친 우리 출판 서점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지나칠 수 없는 두곳이 있다. 피난시절 인쇄소가 많고 문인들이 집결했던 이 유료 대구가 서울을 대신할 유일한 출판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면 도서판매의 거점은 단연 부산지역의 몫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도서관주식회사(51년 창립)와 삼협문화사(49년 창립)라는 유통계의 두 거목이 모두 부산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굴곡으로나마 한때 우리 서점계의 물길을 좌지우지하던 부산서적도매상들은 40년의 시간 이편에 와서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여타 지역의 서적도매상들이 이렇다 할 지역 특색을 갖지 못한 것처럼 부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4백만 인구를 고객으로 상대한다는 점과 50년대의 영광을 부활시키려는 서점인들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정도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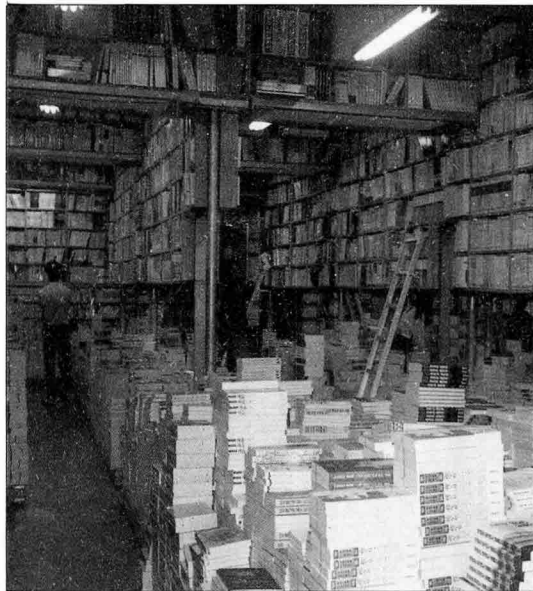
판매시장의 부진 등을 이유로 활기차 보이지 않는 부산의 도매상들은 크게 전집류·참고서류를 다루는 총판, 출판사 직영 지사와 단행본을 취급하는 도매서점, 전문서적을 판매하는 도매상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부산도매시장의 큰 물줄기를 이어오는 곳은 한림서원과 한성서적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두 점포가 단행본만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도 남는다. 하지만 전집류·참고서류·아동물의 유통계가 조직적 측면에서 대표성을 띠지 못할뿐더러 단행본 유통량이 강세를 보이는 이 지역 도서시장의 체질을 고려한다면 틀린 말도 아니며, 이들의 존재는 선배격인 대한도서·삼협문화사와 무관하지 않다.

부산역 부근에 설립돼 1백60여개 출판사의

책을 공급하면서 전국 최대임을 자랑했던 대한도서가 52년말의 대화재와 경영난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쌍두마차격인 삼협문화사마저 87년 경영부진에 부딪쳐 폐업하면서 한림과 한성의 사세는 2세대라는 자부심과 함께 확장일로로 치달게 되었다. 소매상과 도매상을 각각 운영하던 김종식·이윤구씨의 보기도문 합자 성공사례인 한성은 시설투자와 치밀한 영업방식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에 기틀을 다진 케이스. 이보다 앞서 고서점가로 이름난 보수동에서 출발한 한림서원은 사회과학에서 비중을 두면서 아직까지도 부산제일의 도매상으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과 더불어 부산의 크고 작은 도매상들은 부산 미문화원 부근인 중구 대청동의 한 골목 안에 40~50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는데 대개가 총판이나 전문서적을 취급하는 곳들이다. 부산의 전집물들은 이들 총판이나 전집물센터를 통해 유통되며 현재 학원사·삼익사·성림서적 등 20여 점포들이 성업중이다. 한편 대형 출판사들은 지사운영으로 자사의 도서를 판매하며 이같은 유통체계는 참고서류도 매일반이다. 그밖에 잡지류가 배달판매로 소매상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타지역과 동일한 점이라면 선박회사에 재고도서를 담판판매하는 것은 항도 특유의 판매형태로 볼 수 있다.

부산도매시장을 대표하는 한성·한림의 경우 약 3백여 군데의 소매점과 거래를 유지하는데 거래품목의 차별로 인해 두 도매상과 이종 거래하는 소매상도 제법된다. 도매상과 소매상의 거래방식에서 부산의 특색은, 도매상들이 철저히 도매만을 고집하면서 일체 소매를 하지



부산 대청동 도매골목의 한 서적상 내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30분이 되면 이 대청동 도매골목은 책구입을 위해 몰려든 소매업자들로 북적댄다. 여기에 서울로부터 찾아드는 출판사 영업직원들이 가세하면 실로 '아수라장'이 되기 십상.

"지방이라는 불리한 여건 때문에 소매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반품이 끊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개점휴업인 출판사들의 재고가 산더미라 매장보다 더 큰 창고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한성서적의 이윤구씨가 덧붙이는 또 한가지의 고충은 소매서점으로부터의 순조롭지 못한 결제에 있다. 시설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제지연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보다 더욱 심한 골칫거리는 오히려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 도매골목 터줏대감 이경복씨

(한림서원 대표)의 또다른 지적이다.

"부산 도매상의 역사 역시 부침이 심한 편입니다. 예컨대 교통의 발달로 위수지역이던 울산·마산·제주권이 빠져나가고, 참고서·잡지 등이 호황과 불황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장사가 좀 된다 하면 몰려들어 아우성치는 고질병입니다."

그의 말마따나 안 팔리는 책과 종수가 많은 기존의 도매상들이 베스트셀러를 위주로 운영하는 도매상들과 일명 '나까마 상인'으로 불리는 업자들에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쨌거나 피난시절의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이 지역 도매상들의 활기찬 노력의 끈이 튼튼한 이상 부산의 도매골목은 앞으로 부산할 것이다.

—최태원 기자

**"넘겨보고 싶은책" 표인책**



디자인 커넥션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12-1 강변한신코아 219호 전화) 716-8309; 701-8073 FAX) 716-8309

표지디자인 본문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사본 문화행사홍보물제작

**책**은 많지만 넘겨보고 싶은책은 흔치 않습니다. 새로운 감각으로 독자를 이해하고 독자의 눈을 '끌수있는 책, 저자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고 푸른색을 푸르게 표현하는 책, '디자인커넥션'은 누구나 한번쯤 넘겨보고 싶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